

여성 의약품

김수병/한겨레21 기자

남 녀가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 효과도 같은 것일까. 그렇게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 별도의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하게 사실이다. 하지만 남녀의 약물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생각하면 편리함에 만족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의료계는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면 성별을 무시하는 진료를 관행으로 여겨왔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통증에 대한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오하이오대학 건강심리학 교수인 프랜시스 케페 박사는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고통이 남녀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여성들은 휴식과 오락 등으로 감성을 조절하며 고통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업살'이 심한 것은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지 않는 까닭이다. 환자의 성에 따라 통증에 대한 치료방법을 달리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에 따라 질병 치료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발병률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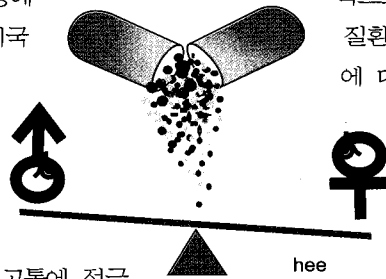
면역체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류머티즘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등의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80%가 여성이라는 사실도 성별에 따른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사실은 '성별에 따른 맞춤 의약품'(Gender Specific Medicine)이라는 전문 의학분야를 예고하고 있다. 남녀의 중요한 인체 시스템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을 의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명한 생리학적 차이는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했을 때 여성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더욱 효과적

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만일 여성들이 '맞춤 의약품'을 복용하게 되면 의료계에 일대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성별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징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기존의 모든 의약품이나 치료법도 성별에 따라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사들은 특정한 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심장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특정 암에 대해 여성에 적합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인과 질환이 아니더라도 여성외과, 여성내과, 여성정신과 등으로 전문화하는 병원도 생길 수 있다.



이제 성별에 따른 맞춤 의약품이 새로운 의료시장을 형성할 태세이지만 그 흐름은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약물대사에 있어서 호르몬 관련 질환이 아니면 성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오래된 가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자 개인별 유전자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오래된 가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개인별 유전자들의 변화를 추적, 이를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개인의학'의 도전도 '성별의학'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성별의학이 개인의학의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의학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성별의학이 주목받는 것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유전자 의학의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면 인류의 절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